

인프라 풍성 '인재양성 메카'

익산시, 과학·외국어교육 등 체험형 각종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에 조성된 체험형 교육 인프라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명실상부한 인재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학생과 일반 시민까지 폭넓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교육 경쟁력과 도시 브랜드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전북과학교육원과 익산 외국어교육센터, 어린이영어도서관 등 체험형 교육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다. 부송동에 위치한 전북과학교육원은 학생들의 상상력을 더해줄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도내 과학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개원했으며 전시체험관과 교육연수관 등으로 구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덕분에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지난해 6만3천여명, 올해 10월 기준 7만여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어를 교육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탄탄하게 조성돼 있다. 옛 이리남중 부지에 건립된 익산외국어교육센터는 블록존과 지구촌 여행관, 요리 체험실 등이 있어 전문적인 외국어교육은 물론 각국의 문화체험까지 즐길 수 있다.

특히 센터는 교육대상을 학생 뿐 아니라 교사, 일반 시민까지 확대해 폭넓은 외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교육 과정에 원어민 교사와 외국어교육 전문가들이 투입돼 학생들은 외국어 기본과정, 방과 후 과정을 시민들에게는 외국어 학습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동국신속 삼강행실도' 효자 이보할지(李甫翬指)부처 효부 동래정씨 등 효행미화로 유명한 익산 용동면에서 경로효친 실천에 박차

어르신 180명 장수보약 나눔

익산 용동면, 효문화 실천박차 '장수보약·이웃사랑'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동국신속 삼강행실도' 효자 이보할지(李甫翬指)부처 효부 동래정씨 등 효행미화로 유명한 익산 용동면에서 효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경로효친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용동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기관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15일 용동면민을 위해 장수보약, 단호박식혜, 김장김치 등 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자랑스러운 효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 위해 앞장서기 위해 1940년 이전 출생 마을 어르신 180여명에게 장수보약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용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박만식)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420만원으로 여름철 허약해진 기를 채우고 겨울을 건강히 날 수 있도록 장수보약을 지어드렸다.

지난해 처음 관내 기관단체협의회에서 성금 150만원을 모아 만90세 이상 어르신과 만80세이상 소외계층 어르신 총48명에게 보약을 지어드린 이후 효행 문화확립을 위해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의회 의원들, 행정사무감사 대비 '열공 모드'

상임위별 현안사업 추진상황·대책 논의... 간담회·현장방문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상임위별 현안사업 추진상황과 대책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열공 모드로 들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집행부 사업이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시정이 추진됐는지에 감사목적성을 둔 예정이다.

특히 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대비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필요한 자료들을 집행부에 요청하고 사전에 확보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 하느라 의원 사무실에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또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대안을 연구하고 전문가와 실무자들에게 자문을 받는 등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충실히 임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제9대 들어 처음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작은 실수도 용납 없이 잘잘못을 따지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매일 의원사무실에 출근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제9대 들어 처음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시민 제보를 중심으로 행정 감사에서 사실관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한 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울곧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 나중대 경제건설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장은 "수박 겉핥기 식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시민 의견이 반영된 적극적인 감사로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서서 지역 현안과 민원을 꼼꼼히 챙기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파헤치고 개선할 부분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도록 할 것이며,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관용 기자

군산시, 재활용품 교환캠페인 참여 독려

군산시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품교환캠페인의 시민 참여를 독려했다.

시는 15일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화장지와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활용품 교환 품목인 종이팩과 폐건전지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활용품으로 종이팩은 일반 종이

에 비해 품질이 월등한 고품질로 재사용된다.

건전지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함유되어 생활폐기물과 함께 버려질 경우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 유발원인이 되어 꼭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워 물로 헹군 후 펼쳐서 가져가야 하며, 폐건전지는 수은, 신화은, 니켈, 카드뮴, 리튬, 망

간전지 등 모든 종류의 폐건전지가 교환 대상에 해당한다.

누구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1,000ml 미만 종이팩 20매를 가져오면 화장지 1롤, 1,000ml 이상 종이팩 10매는 화장지 1롤을 교환해주고, 폐건전지는 500g을 가져오면 종량제봉투(10리터) 1매로 교환할 수 있다.

지난 9월말 기준 수거량은 1,000ml 미만 종이팩 136,367매, 1,000ml 이상 종이팩 214,349매, 폐건전지 4,192kg이다(분기별 집계).

/*군산=김관용 기자

익산시, 대규모재난 시민안전 역량강화훈련

익산시가 실전급 재난대응 훈련으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사수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시는 14일부터 17일까지 방곡지역 재난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전국단위 종합훈련인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복합재난에 대비해 현장대응 훈련에 중점을 뒀다.

시는 17일 대한송유관공사 전북지사 에서 지진에 의한 유류시설 화재·파손 및 누출 사고에 대응하는 재난현장

대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20여개 유관기관과 기업·단체 등 270여명이 참여해 고양시 유류탱크 화재와 같은 실제 사례를 반영해 지진에 의한 건물붕괴, 유류시설 파손 및 화재, 유류누출에 의한 하천 오염 등 다 유형 복합재난에 대응하는 대규모 재난 종합훈련으로 진행된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대대적인 현장훈련을 진행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별 재난대응체계 역량강화와 협업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대, 일자리플러스센터 서포터즈 평가회 진행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제1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서포터즈 평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1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서포터즈 K-UNI+는 14명으로 구성되어 2022년 5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6개월 동안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청년고용정책 등의 홍보 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매월 진로·취업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각종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게시함으로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였고 각종 오프라인 행사에는 올 한해 약 900명을 대상으로 청년고용정책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이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오정근 부센터장은 서포터즈에게 활동인증서를 수여, 수료를 축하했다. /*군산=김관용 기자

익산시, 청소년원 고객 만족 친절서비스 강화

익산시가 시민 실생활에 밀접한 청소년원 분야에 시민 체감 만족도를 높여나간다.

시는 청소년 불편민원에 대한 친절한 응대와 적극적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익산시 청소년대행업체 종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친절교육은 청소년대행업체(유)행복나눔미를 선두로 각 청소년대행업체 종사원의 민원인 응대 태도 및 친절 마인드를 점검해 친절한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대행업체들은 전문 친절 강사를 초빙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환경미화원들의 중요성과 전문 청소년 종사원으로서 필요한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1일에 음·면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인 행복나눔미는 회사 홍보관에서, 15일에는 동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인(유)금강공사가 국가무형문화재 통전전수교육관에서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